

# [엔백주식회사 소식]

엔백 주식회사는 생활쓰레기 자동집하 시스템을 건설하는 회사로써, 1999년 국내최초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 시스템을 대규모 주택단지에 도입하고, 지금은 신도시와 도시정비사업 등에 시행하였습니다. 엔백 시스템은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실내 또는 옥외에 설치된 투입구에 버리면 진공청소기의 흡입원리로 관로를 통해 자동 이송하여 집하장으로 수거하는 첨단 시설입니다.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용인, 광명, 파주, 세종 등 신도시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서울지역에서는 방배 그랑자이,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등에서 건설 중이며 경기 수도권에서는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재건축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엔백은 자동집하시스템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설계·제작·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선도기업입니다.

엔백은 20여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하여 국내 자동 집하시스템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독자적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일본, 호주, 대만 등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엔백주식회사는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스마트폰 운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빅데이터기반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전 모드를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FID 중량계량 투입구는 환경부의 '음식물종량제' 전국 시행 정책에 발맞춰 RFID 중량 계량 투입구를 개발 하였습니다. 버스 탑승시 버스카드를 대면 버스비가 차감되는 것처럼 주민이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릴 때, 투입구 카드 단말기에 RFID 카드를 갖다 대면 투입구 내부에서 무게를 측정해 배출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엔백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종량제 정책 시행에 따르는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엔백은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더 나은 환경,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함께 고민하는 기업의 하나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힘은 바로 기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더욱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 [2020 K-ICT WEEK in BUSAN]

올 하반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백의 김인복 상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식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언론과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는 화두를 던져나갔습니다.

또한 AI 형 스마트 자동집하시스템을 소개하며, 스마트시티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